

한국과 호주여성의 헤어스타일 행동 및 선호도 비교

A Comparative Study of Korean and Australian Women's Hairstyle Behavior and Preference

박숙현* · 류은혜 · 이순덕

경성대학교 의상학과 · 웰라 코리아, 세바스찬 사업부 · 동주대학 패션코디과

Park Sook-Hyun* · Ryu Eun-Hye · Lee Soon-Deuk

Dept. of Fashion Design and Merchandising, Kyungsoong University ·

Wella, Korea · Dept of Fashion Coordination, Dongju College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hairstyles between Korean and Australian women, who have different individual hair characteristics, social backgrounds, and culture from each other. Data were collected through a survey of 208 Australian females and 392 Koreans. Frequency analysis, t-test, and two-way ANOVA were used to analyze the data.

The results are as follows: Korean and Australian women maintain a hairstyle for six months or less in most of the cases. They preferred a hairstyle with bang, and the elderly especially a shorter hair length. Choosing their hairstyles depended on such factors as hair length, dyeing, form of face, harmony with clothing, and social status. There was no difference, however, in a preferred hair length. Korean women possessed brown and black hair colors in a descending order, whereas Australians light blonde and brown in a descending order as well. There was a big difference in the preference for a permanent wave. Korean women preferred to give a volume or curl to their hair, while Australians wanted to have a straight hair. According to the study on a hairstyle behavior, it was found that there were differences in fashion and individuality between two countries and also in dependency among age groups, whereas no differences existed in beauty.

Key Words : hairstyle behavior, hairstyle preference, hair color

I. 서론

오늘날 산업사회의 발달과 대중 매체의 발달은 미를 추구하고 싶어 하는 인간의 본능을 더욱 자극시키고 있으며, 신체의 건강과 미적 추구는 우리 삶에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요구는 패션 산업과 함께 미용 산업의 발전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미의 외적 기준은 시대적 요구에 따라 항상 변화되므로 그 시대의 필요성과 문화조류에 맞추어 새롭게 개발되어 왔다. 또한 패션산업이 발달해 갈수록 단순히 의복 자체에만 관심을 가졌던 기존의 관념에서 벗어나 의복과 조화를 이루는 다양한 부속물들과의 코디네이션 효과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이에 대한 연구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현대의 코디네이션은 의상뿐 아니라 헤어스타일, 메이크업 액세

서리들과 함께 전체적 조화를 중요시하는 토털 패션화 경향으로 변화되었다(김양휴, 1996). 이러한 의복의 토털 패션 가운데 중요한 요소인 헤어스타일은 영향력 있는 여러 가지 신체적 외모 변인 중의 하나로(Cash, 1986) 그 시대 의복의 형태와 함께 많은 변화를 했다. 헤어스타일은 신체의 머리 부분에 대한 보호 기능과 인간의 미적 추구를 위한 장식적 수단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근래에는 후자의 기능이 더 강조되고 있다.

헤어스타일에 관한 선행연구는 한국과 서구여성의 헤어스타일에 대한 변천(김희숙, 1993)현상을 다루거나 헤어스타일의 인상형성과 이미지에 관한 연구(윤소영 2001, 류지원, 소영진 2000)들이 대부분이었고, 한국과 외국의 헤어스타일 현상 차이, 비교에 관한 연구는 전무하다. 패션에 있어 유행은 동·서양 여성의 피부색과 체형적인 신체적 조건이 비록 다를지라도 트렌드의 흐름은 유사하

* Corresponding author: Sook Hyun Park
Tel: 051) 620-4663, Fax: 051) 623-5248
E-mail: shpark@ks.ac.kr

다. 현재의 착용되어지는 헤어스타일 조사·비교는 현재 유행하는 트렌드를 반영하며 또한 다음의 트렌드를 예견 하는데 좋은 자료로 사용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의복의 토털 패션 가운데 중요한 요소인 헤어스타일에 관하여 신체조건과 문화적 조건이 다른 한국과 호주의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1)현재의 헤어스타일과 선호하는 헤어스타일, 2) 헤어스타일 선택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 3)헤어스타일 행동에 관해 국가별·연령별로 비교하여 동·서양 여성의 헤어스타일에 관한 행동특성에 나타난 차이점을 규명하여 서로 다른 헤어 문화에 관한 이해도를 증진시키고 이에 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설문지법을 이용하였으며 호주 멜버른 지역과 한국의 부산 지역에 거주하는 20대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분석 하였다. 본 연구의 책임연구원이 호주 멜버른에 있는 빅토리아 대학교 헤어드레싱 코스(Hairdressing program in Victoria University)를 2년간 수강하면서 학과 수업 외에 VIC@Salon(헤어 샵)에서 미용 기술을 병행하였는데 한국여성들과 근본적인 자연모발 상태나 선호하는 부분들이 달라서 그 차이점을 알아보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헤어스타일 개요 및 선행연구

헤어스타일이란 머리형이나 머리형태, 머리풍을 말하는 것으로서 헤어 두(hair do)라고도 하며, 프랑스어의 꼬아푸르(corffure)에 해당한다(복식사전, 1995). 복식의 일부분인 헤어스타일은 인체를 바탕으로 행해지는 표현이라는 점에서 복식문화와 중요한 공통점을 갖고 있고, 헤어스타일 역시 정치적·사회적·경제적·역사적 흐름 등의 내적 요인에 영향을 받으면서 발전하여 왔다. 신체 중 가장 중요한 얼굴 가까이에 있는 헤어스타일은 눈에 쉽게 띄는 부분이고 변화가 용이한 곳으로, 오늘날 다양한 개성 연출을 가능하게 하며, 의복과 마찬가지로 그 시대적 문화를 반영한다(김명희, 2000).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머리를 소중하게 다루는 것이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것이라고 여겼으며 모발을 가꾼 모양만 보아도 그 사람의 지위, 계급, 신분, 혼인의 유무 등을 알 수 있었으므로 헤어스타일은 사회적인 현상을 나타내는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곽형심, 1997). 인간

의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중요한 기능을 갖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와 발전을 계속해 온 헤어스타일은 의상, 메이크업과 함께 패션경향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가 되고 개성의 강조와 유행의 물결 속에 새로운 머리 예술을 선도해 나가고 있다(김명주, 1998).

헤어스타일은 사람 인상의 70%정도 이상을 좌우할 만큼 중요하며 헤어스타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각진 얼굴이 둥글게 보이기도 하고 통통한 사람이 말라보이기도 한다. 여성의 시장이 커지면서 헤어스타일은 이를 다루는 중요한 한 분야로 급성장 했으며 헤어스타일에 대한 기사를 다루지 않은 여성잡지가 없을 만큼 개성과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20세기에 있어서 이미지 변화에 필수 요소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현대에는 자기 고유의 한 가지 스타일에서 벗어나 변화를 추구하는 풍조가 연예계나 최첨단의 멋을 추구하는 여성들 사이에 유행되고, 일반인들도 한가지 헤어스타일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다양한 헤어스타일을 연출하게 되었다. 이제는 커트 스타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파마, 염색, 브릿지가 헤어 패션의 하나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김희숙, 2000).

헤어스타일에 관한 한국과 외국의 연구를 비교해 보면 인상형성에 관한 연구에서 Davis(1976)는 얼굴형은 헤어스타일에 따라서도 이미지가 다르게 지각된다고 하였다. 얼굴매력은 눈, 코, 입, 얼굴형태, 머리카락, 코의 순서로 중요하다고 하였으며 헤어스타일도 인상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하였다. 나광주(1989)는 헤어스타일로 얼굴형을 조정할 수 있으며 개인의 성격도 판단할 수 있으므로 헤어스타일이 인상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성격에 관한 연구에서 Pancer와 Meindl(1978)은 머리카락 길이가 성격에 주목할만한 효과를 가지는데 긴 머리의 남자는 짧은 머리의 남자에 비해 부정적인 성격을 형성하였다고 하였으며, 김양휴(1996)는 성격이 헤어스타일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강인성, 허위성 모두 마음에 드는 헤어스타일과 싫어하는 헤어스타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머리형태의 변화에 관한 연구에서 Peterson과 Curran(1976)은 남성의 머리형태 변화에 대한 여대생의 지각에서 짧은 머리의 남성이 일반적으로 선호되어 지적이고 도덕적이며 적응력이 높은 것을 나타냈으며, 짧은 머리의 남성을 선호하는 여성은 보수적이고 긴 머리의 남성을 선호하는 여성은 진보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주연(1991)은 컴퓨터 그래픽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헤어스타일 변화에 의한 얼굴이미지와 형태의 비교연구에서 짧은 머리는 도시적이고 남성적이며, 중간 길이의 머리는 촌스럽고 평범하며, 긴 머리는 여성스럽고 부드러운 이미지를

주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헤어케어가 전문인 비달사순에서 20대 여성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여성들은 메이크업을 위해 피부관리에는 신경을 많이 쓰는 반면 헤어스타일링을 위한 두발 관리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한 것으로 밝혀졌다. 자신을 매력적으로 연출하기 위한 요소로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링 모두를 꼽긴 하지만 모발관리는 우선 순위에서 한 단계 밀려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70% 이상이 아름다운 헤어스타일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로 건강하고 부드러운 머릿결을 꼽아 헤어케어의 중요성은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시원, 2004).

이와 같이 헤어스타일은 동서양 모두 개인의 이미지, 인상형성, 성격, 직업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시술과정이 간단하데 비해 효과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개인에 따라 다양각색으로 표현이 가능하고 누구나 헤어스타일을 이용해 외모를 보다 나은 모습으로 변화시킬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헤어스타일은 시대, 민족, 개인에 따라 다양하지만 21세기의 빠른 정보화는 지역, 사회, 국가를 초월한 각 분야에서 생성되는 변화가 신속히 전달되고 정착되고 있다. 헤어스타일 분야에 있어서도 인터넷은 동서양 및 국가간의 지역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과거 및 현대의 정보가 동시에 확보되어 시간 및 공간을 초월한 헤어스타일의 유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다양한 헤어스타일 및 전 세계의 곳곳에서 현재 유행하는 헤어스타일을 실시간(real time)으로 접하면서 사람들은 그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헤어스타일과 어떻게 보면 특징이 없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유분방하면서도 개인적인 헤어스타일이 등장하기도 한다.

새로운 헤어스타일은 컬렉션에서 발표되어 유행을 창조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나 동양 및 제 3 세계의 문화적 특색은 헤어스타일에 있어서 아이디어의 원천이 되고 있다 현대와 같이 하이 테크놀로지가 바탕이 된 정보화 사회에서 과거에 대한 회상과 향수로서 민속적인 특색과 스타일, 장식 등을 선호하는 원시적 감각이 하이 테크놀로지와 결합하여 헤어스타일에 에스닉한 요소로 반영되고 있으며, IT문화에서 유행하는 퓨전 테크노 헤어스타일이나 사이버 핑크 헤어스타일과 같이 자생적으로 생겨나는 스트리트 헤어스타일이 수용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IT기반하의 인터넷, 위성 등 대중매체의 발달과 보급으로 패션문화의 세계화(globalization) 및 동시화(synchronization)는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오문균, 2003).

2. 헤어스타일 행동

헤어스타일 행동이란 헤어스타일에 대한 태도, 흥미, 관심, 습관, 선택 및 착용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착용한 사람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므로 개인과 집단의 가치관, 선택, 태도, 신분 등을 반영한다. 이러한 헤어스타일에 관련된 소비자 행동 중 본 연구에서 개성추구, 동조성, 심미성, 유행성 등의 4가지 특성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 4가지 헤어행동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

개성이란 자연스러운 것, 독창적인 것,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을 거부하는 것, 다른 모든 사람들이 채택하고 있는 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 어울리지 않는 스타일을 유행이라고 해서 채택하지 않는 것, 틀에 박히지 않는 것 등의 의미를 갖는다. 또한 아무도 갖지 않는 자신만의 독특하고 특별한 특징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며, 자신의 재능을 찾아내어 그것을 최대한 개발하는 것, 즉 자신의 고유한 흥미를 추구하고 특별한 것을 개발하는 것까지를 포함한다.

동조성이란 기존규범에 따라 개인의 행동을 조정해 가는 과정으로서 그룹에 의해 설정된 규범을 준수하려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형태이다. 패션은 사회적 규범의 한 형태로서 패션동조성은 타인의 패션을 추종하는 것으로 표현된다. 동조의식 조성과 소속감 획득을 위해 타인과 유사한 형태의 스타일을 착용하려는 태도이다. 김명희(2000)는 20대 남녀를 대상으로 헤어스타일 모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TV 시청량이 많을수록, 텔런트 관심도가 높을수록, 유행성에 민감하게 반응할수록 텔런트의 헤어스타일을 모방하려는 의도가 많고, 유명 연예인과 동일시하려는 행동이 많을수록 헤어스타일의 모방에 대한 만족이 높게 나타났으며, 또한 텔런트와 동일시하려는 행동은 헤어스타일을 모방한 행동에 대해 만족을 느낀 후, 추후 헤어스타일을 다시 모방하려는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심미성이란 타인들에게 아름답거나 멋있게 보이는 외모를 성취하는 것과 자신 스스로도 아름다운 용모로부터 즐거움을 얻기 위한 현상 모두를 포함한다. 심미성의 결과는 여성들의 아름다움에 관한 욕구정도를 평가할 수 있다. 동양여성과 서양여성 또한 연령별로 어느 집단이 아름답고 싶은 욕망을 더 많이 가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지를 비교할 수도 있는 행동이다.

유행이란 특정시기에 널리 받아들여지고 채택되는 스타일 또는 생활양식으로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주기적인 특성을 지닌 하나의 사회적 집단 현상이다. 소비자 행동에 나타난 유행성이란 소비자들이 자신의 체형이나 이미지에 상관없이 현재 유행하는 스타일을 맹목적으로 추

중하는 집단 특성을 말한다. 동양이나 서양여성 중 어느 집단의 여성들이 더 유행에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알아 볼 수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방법

본 연구는 설문지법을 이용하였으며, 총 49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조사내용에 따른 설문항목 및 평가방법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표 1> 조사 항목

조사내용	항목수	조사항목
현재 헤어스타일	3문항	유지기간, 머리길이, 앞머리 유무
선호하는 헤어스타일	4문항	머리길이, 모발형, 염색 색상, 펌 종류
헤어스타일 선택요소	9문항	모발의 컨디션, 머리길이, 염색, 자신의 얼굴형, 헤어디자인, 관리의 편리성, 의복과의 적합성, 체형과의 적합성, 사회적 신분
헤어스타일 행동	30문항	개성, 동조성, 유행성, 심미성

2. 조사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호주 멜버른 지역과 한국 부산지역에 거주

하는 성인여성(만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하였으며, 조사기간은 2003년 6월~8월(호주), 2003년 11월~2004년 2월(한국)이었다. 설문지는 호주 220부, 한국 400부 총 620부를 배부하여 회수된 것 중 불성실한 답변 및 무응답 항목이 많은 20부를 제외시킨 600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3. 자료 분석 방법

자료 분석은 SPSS/WIN 10.0 package program을 사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현재 헤어스타일 및 선호하는 헤어스타일 항목들에 대해서는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헤어스타일 선택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에 대해서는 한국과 호주의 국적별 차이는 t-test, 한국과 호주의 연령별 차이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 기법을 사용하였다. 두 조사 집단 간 국적별과 연령별(20대, 30대, 40대이상)에 따라 유행성, 심미성, 동조성, 개성의 헤어스타일 행동 요소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이원배치 분산분석(Two-way ANOVA) 기법을 사용하였다.

Ⅳ. 결과 및 고찰

1. 현재 헤어스타일에 관한 연령별 비교

동일한 형태의 헤어스타일 유지기간은 국가별로 한국

<표 2> 조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n=600(한국 392, 호주 208)

인구통계학적 변인		n (%)	
연령	한국	20대	235 (59.9)
		30대	67 (17.1)
		40대 이상	90 (23.0)
	호주	20대	109 (52.4)
		30대	54 (26.0)
		40대 이상	45 (21.6)
직업	한국	학생	146 (37.2)
		직장인	197 (50.3)
		무직	49 (12.5)
	호주	학생	73 (35.1)
		직장인	113 (54.3)
		무직	22 (10.6)

<표 3> 현재 헤어스타일에 관한 연령별 비교

n(%)

측정항목	연령	한국 (n=392)				호주 (n=208)			
		20대	30대	40대 이상	합계	20대	30대	40대 이상	합계
헤어스타일 형태 유지 기간	6개월 미만	165 (70.2)	36 (53.7)	39 (43.3)	240 (61.2)	74 (67.9)	24 (44.4)	27 (60.0)	125 (60.1)
	1년 정도	43 (18.3)	13 (19.4)	17 (18.9)	73 (18.6)	30 (27.5)	11 (20.4)	4 (8.9)	45 (21.6)
	2~3년 정도	15 (6.4)	9 (13.4)	13 (14.4)	37 (9.4)	5 (4.6)	11 (20.4)	8 (17.8)	24 (11.5)
	3년 이상	12 (5.1)	9 (13.4)	21 (23.3)	42 (10.7)	-	8 (14.8)	6 (13.3)	14 (6.7)
	합계	235 (100.0)	67 (100.0)	90 (100.0)	392 (100.0)	109 (100.0)	54 (100.0)	45 (100.0)	208 (100.0)
머리 길이	귀밑 길이 (짧은커트포함)	1 (0.4)	2 (3.0)	4 (4.4)	7 (1.8)	5 (4.6)	3 (5.6)	4 (8.9)	12 (5.8)
	짧다	20 (8.5)	15 (22.4)	43 (47.8)	78 (19.9)	17 (15.6)	11 (20.4)	14 (31.1)	42 (20.2)
	단발 길이	25 (10.6)	17 (25.4)	33 (36.7)	75 (19.1)	32 (29.4)	17 (31.5)	16 (35.6)	65 (31.3)
	어깨 길이	78 (33.2)	17 (25.4)	5 (5.6)	100 (25.5)	16 (14.7)	11 (20.4)	2 (4.4)	29 (13.9)
	등의 중간 정도	99 (42.1)	15 (22.4)	5 (5.6)	119 (30.4)	33 (30.3)	12 (22.2)	9 (20.0)	54 (26.0)
	허리선 길이	9 (3.8)	1 (1.5)	-	10 (2.6)	6 (5.5)	-	-	6 (2.9)
	허리선 보다 길다	3 (1.3)	-	-	3 (0.8)	-	-	-	-
	합계	235 (100.0)	67 (100.0)	90 (100.0)	392 (100.0)	109 (100.0)	54 (100.0)	45 (100.0)	208 (100.0)
앞머리 유무	있다	184 (78.3)	52 (77.6)	79 (87.8)	315 (80.4)	60 (55.0)	25 (46.3)	36 (80.0)	121 (58.2)
	없다	51 (21.7)	15 (22.4)	11 (12.2)	77 (19.6)	49 (45.0)	29 (53.7)	9 (20.0)	87 (41.8)
	합계	235 (100.0)	67 (100.0)	90 (100.0)	392 (100.0)	109 (100.0)	54 (100.0)	45 (100.0)	208 (100.0)

의 경우 6개월 미만인 61.2%로 가장 많았고 호주의 경우도 6개월 미만으로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머리길이는 한국의 경우 20대 여성에서는 등의 중간정도 길이가 가장 많았고, 30대 여성에서는 다양한 분포를 보였고, 40대 이후 여성에서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머리길이가 짧음을 알 수 있다. 호주의 연령별 머리길이를 살펴보면 20대 여성에서는 한국의 20대 여성보다 다양한 머리길이 분포를 나타내고 있고 30대 여성에서는 한국과 비슷하였으며 40대 이상은 한국여성들이 짧은 머리를 호주여성들보다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앞머리의 유무에서는 한국의 경우 앞머리가 있다 80.4%, 호주의 경우 앞머리가 있다 58.2%로 한국과 호주 여성들 모두 자신의 이마를 가리는 헤어스타일을 더 많이 하고 있는데 한국 여성들이 호주 여성들보다 이마를 가리는 헤어스타일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헤어스타일 선택 요소에 관한 국가별 비교

Likert 5점 척도(1=전혀 중요하지 않다, 2=중요하지 않다, 3=보통이다, 4=중요하다, 5=매우 중요하다)에 의해 평가된 헤어스타일 선택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의 국가별 차이 비교는 <표 4>와 같이 나타났다. 머리길이, 자신의 얼굴형, 의복과의 적합성, 체형과의 적합성, 사회적 신분 요소에서 한국과 호주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서는 호주에 비해 헤어스타일 선택 시 머리길이, 자신의 얼굴형, 의복과의 적합성, 사회적 신분 요소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염색 항목에서는 한국과 호주간 부(-)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호주에서는 헤어스타일 선택 시 한국에 비해 염색 요소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볼 수 있다.

헤어스타일 선택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에 관한

〈표 4〉 국가별 헤어스타일 선택 요소

	국적	N	M	SD	T - 값
모발의 컨디션	한국	392	4.17	.79	0.97
	호주	208	4.10	1.07	
머리길이	한국	392	3.82	.79	2.42*
	호주	208	3.63	1.13	
염색	한국	392	3.56	.93	-5.06***
	호주	208	4.00	1.18	
자신의 얼굴형	한국	392	4.24	.74	4.62***
	호주	208	3.89	1.12	
헤어디자인	한국	392	4.21	.69	1.56
	호주	208	4.11	.99	
관리의 편리성	한국	392	4.07	.77	-.911
	호주	208	4.13	.97	
의복과의 적합성	한국	392	3.84	.78	7.745***
	호주	208	3.20	1.26	
체형과의 적합성	한국	392	3.83	.84	5.394***
	호주	208	3.36	1.31	
사회적 신분	한국	392	3.35	.91	7.300***
	호주	208	2.70	1.26	

* : P < 0.05 *** : P < 0.001

연령별 차이는 <표 5>와 같이 나타났다. 한국에서는 헤어디자인, 의복과의 적합성, 사회적 신분 요소에서 연령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0대 이상 연령에 비해 20·30대는 헤어스타일 선택 시 헤어디자인 요소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40대 이상 연령에 비해 30대는 의복과의 적합성 요소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으며, 사회적 신분 항목은 20대와 40대 이

상 연령에 비해 30대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항목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호주에서는 관리의 편리성 요소에서만 연령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대에 비해 30대·40대 이상이 헤어스타일 선택 시 관리의 편리성 요소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볼 수 있다.

〈표 5〉 연령별 헤어스타일 선택 요소

요소	연령					연령				
	한국					호주				
	20대	30대	40대 이상	합계 평균	F 값	20대	30대	40대 이상	합계 평균	F 값
모발의 컨디션	4.11 A	4.28 A	4.24 A	4.17	1.780	4.13 AB	3.87 A	4.29 B	4.10	2.009
머리 길이	3.87 A	3.79 A	3.71 A	3.82	1.433	3.70 A	3.57 A	3.53 A	3.63	0.421
염색	3.51 A	3.54 A	3.70 A	3.56	1.427	4.00 A	3.96 A	4.04 A	4.00	0.058
자신의 얼굴형	4.26 AB	4.37 B	4.11 A	4.24	2.519	3.85 A	3.78 A	4.11 A	3.89	1.215
헤어 디자인	4.25 B	4.31 B	4.04 A	4.21	3.809*	4.04 A	4.28 A	4.07 A	4.11	1.112
관리의 편리성	4.06 A	4.21 A	3.99 A	4.07	1.636	3.93 A	4.31 B	4.42 B	4.13	5.676**
의복과의 적합성	3.86 AB	4.01 B	3.67 A	3.84	4.071*	3.30 A	3.02 A	3.16 A	3.20	0.955
체형과의 적합성	3.80 A	4.00 A	3.78 A	3.83	1.667	3.45 A	3.11 A	3.42 A	3.36	1.274
사회적 신분	3.26 A	3.66 B	3.36 A	3.35	5.114**	2.87 A	2.52 A	2.49 A	2.70	2.233

* : P < 0.05 ** : P < 0.01

알파벳은 Duncan의 사후검증 A < B

3. 선호하는 헤어스타일에 관한 연령별 비교

<표 6>에 나타난 선호하는 머리길이는 한국 여성의 경우 20대는 등의 중간정도 길이, 40대는 짧은 형을 가장 선호하였고, 호주 여성의 경우 20대는 등의 중간정도 길이, 40대 이상은 짧은 형을 선호하였다. 이는 동·서양 여성 모두 젊은 여성은 긴 머리를, 중년 이후는 짧은 머리를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선호하는 모발형은 한국의 경우 직모, 곱슬머리, 아주 가는 곱슬머리 순으로 나타났다. 호주의 경우도 직모, 곱슬머리, 아주 가는 곱슬머리 순으로 나타나 두 나라간의 차이가 별로 없음을 알 수 있었다.

<표 6>에서 선호하는 염색의 색상은 한국의 경우 갈색, 검정, 밝은 금발, 어두운 금발 순으로 나타났고, 호주의 경우 갈색, 밝은 금발, 어두운 금발, 검정 순으로 선호하였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한국의 20대 여성은 갈색, 검정, 밝은 금발 순으로 선호하였고, 한국의 30대 여성은 갈색, 검정, 어두운 금발 순으로 선호하였으며 한국의 40대 이상 여성은 갈색, 검정, 밝은 금발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한국여성은 갈색 머리를 염색의 기본색으로 선호하였고 또한 연령이 높아감에 따라 갈색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호주의 경우 20대 여성은 염색의 색상을 갈색, 밝은 금발, 검정 순으로 선호하였고,

30대 여성은 갈색, 어두운 금발, 밝은 금발 순으로 선호하였으며, 40대 이상 여성은 갈색, 밝은 금발, 어두운 금발 순으로 선호하였다. 호주 여성은 대체로 갈색과 밝은 갈색을 선호함을 알 수 있으며 연령이 높아감에 따라 염색의 색상으로 검정색의 선호도가 현격히 줄어들음을 알 수 있다.

선호하는 펴미 종류에서는 연령별로 한국의 경우 20대에서는 아주 곱고 자연스런 웨이브 펴미, 스트레이트 펴미, 굵은 웨이브 펴미 순으로 선호하였고, 30대에서는 아주 곱고 자연스러운 웨이브, 굵은 웨이브 펴미, 스트레이트 펴미로 20대와 선호하는 펴미 종류가 비슷함을 알 수 있다. 40대 이상에서는 아주 곱고 자연스러운 웨이브 펴미, 굵은 웨이브 펴미, 중간 웨이브 펴미로 20, 30대에 비해 스트레이트 펴미 보다는 웨이브 펴미를 선호함을 알 수 있다. 호주의 경우 선호하는 펴미 없다고 응답한 20대는 40.8%, 30대는 71.4%, 40대 이상은 63.0%로 대부분 펴미를 선호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펴미를 선호하는 응답자 중에서도 20, 30대에서는 웨이브 펴미보다는 스트레이트 펴미를 선호하였고 40대 이상에서는 아주 곱고 자연스러운 웨이브 펴미와 자연스런 웨이브 펴미를 선호함을 알 수 있다. 국가별로 한국의 경우 아주 곱고 자연스러운 웨이브 펴미, 스트레이트 펴미, 굵은 웨이브 펴미, 중간 웨이브 펴미 순의 빈도를 보

<표 6> 선호하는 헤어스타일에 관한 연령별 비교

n(%)

측정항목	연령	한국 (n=392)				호주 (n=208)			
		20대	30대	40대 이상	합계	20대	30대	40대 이상	합계
선호하는 머리 길이	아주 짧다	2 (0.9)	-	6 (6.7)	8 (2.0)	3 (2.8)	2 (3.7)	3 (6.7)	8 (3.8)
	짧다	8 (3.4)	9 (13.4)	38 (42.2)	55 (14.0)	14 (12.8)	6 (11.1)	20 (44.4)	40 (19.2)
	단발 길이	19 (8.1)	11 (16.4)	14 (15.6)	44 (11.2)	26 (23.9)	19 (35.2)	12 (26.7)	57 (27.4)
	어깨길이	41 (17.4)	22 (32.8)	18 (20.0)	81 (20.7)	18 (16.5)	13 (24.1)	7 (15.6)	38 (18.3)
	등의 중간 정도	107 (45.5)	20 (29.9)	13 (14.4)	140 (35.7)	37 (33.9)	13 (24.1)	3 (6.7)	53 (25.5)
	허리선 길이	51 (21.7)	5 (7.5)	1 (1.1)	57 (14.5)	8 (7.3)	1 (1.9)	-	9 (4.3)
	허리선 보다길다	7 (3.0)	-	-	7 (1.8)	3 (2.8)	-	-	3 (1.4)
	합계	235 (100.0)	67 (100.0)	90 (100.0)	392 (100.0)	109 (100.0)	54 (100.0)	45 (100.0)	208 (100.0)
선호하는 모발	직모	196 (83.4)	42 (62.7)	53 (58.9)	291 (74.2)	62 (56.9)	28 (51.9)	20 (44.4)	110 (52.9)
	곱슬머리	28 (11.9)	21 (31.3)	30 (33.3)	79 (20.2)	35 (32.1)	19 (35.2)	24 (53.3)	78 (37.5)
	아주가는 곱슬머리	11 (4.7)	4 (6.0)	7 (7.8)	22 (5.6)	12 (11.0)	7 (13.0)	1 (2.2)	20 (9.6)
	합계	235 (100.0)	67 (100.0)	90 (100.0)	392 (100.0)	109 (100.0)	54 (100.0)	45 (100.0)	208 (100.0)

〈표 6〉 - 계속

측정항목	연령	한국 (n=392)				호주 (n=208)			
		20대	30대	40대 이상	합계	20대	30대	40대 이상	합계
선호하는 영색상	검정	87 (37.0)	15 (22.4)	12 (13.3)	114 (29.1)	18 (16.5)	7 (13.5)	1 (2.3)	26 (12.7)
	갈색	106 (45.1)	42 (62.7)	67 (74.4)	215 (54.8)	43 (39.4)	19 (36.5)	16 (36.4)	78 (38.0)
	어두운 금발	17 (7.2)	6 (9.0)	5 (5.6)	28 (7.1)	16 (14.7)	15 (28.8)	13 (29.5)	44 (21.5)
	밝은 금발	25 (10.6)	4 (6.0)	6 (6.7)	35 (8.9)	32 (29.4)	11 (21.2)	14 (31.8)	57 (27.8)
	합계	235 (100.0)	67 (100.0)	90 (100.0)	392 (100.0)	109 (100.0)	52 (100.0)	44 (100.0)	205 (100.0)
선호하는 평종류	아주 굵고 자연스런 웨이브 펴	97 (42.0)	31 (47.0)	31 (34.8)	159 (41.2)	6 (7.9)	2 (5.7)	5 (18.5)	13 (9.4)
	굵은 웨이브 펴	34 (14.7)	12 (18.2)	21 (23.6)	67 (17.4)	6 (7.9)	2 (5.7)	3 (11.1)	11 (8.0)
	중간 웨이브 펴	19 (8.2)	4 (6.1)	20 (22.5)	43 (11.1)	3 (3.9)	2 (5.7)	1 (3.7)	6 (4.3)
	작은 웨이브 펴	9 (3.9)	2 (3.0)	4 (4.5)	15 (3.9)	3 (3.9)	-	-	3 (2.2)
	나선형 웨이브 펴	1 (0.4)	1 (1.5)	1 (1.1)	3 (0.8)	6 (7.9)	-	-	6 (4.3)
	스트레이트 펴	49 (21.2)	12 (18.2)	8 (9.0)	69 (17.9)	21 (27.6)	4 (11.4)	1 (3.7)	26 (18.8)
	없다	22 (9.5)	4 (6.1)	4 (4.5)	30 (7.8)	31 (40.8)	25 (71.4)	17 (63.0)	73 (52.9)
	합계	231 (100.0)	66 (100.0)	89 (100.0)	386 (100.0)	76 (100.0)	35 (100.0)	27 (100.0)	138 (100.0)

였고, 호주의 경우 선호하는 펴의 종류가 없다, 스트레이트 펴, 아주 굵고 자연스런 웨이브 펴 순으로 나타나 한국 여성에 비해 호주 여성은 웨이브 펴를 선호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4. 헤어스타일 행동에 관한 한국과 호주의 연령별 비교

본 연구에서 선택한 헤어스타일 행동 즉 개성 추구, 동조성, 심미성, 유행성 등에 관해 한국과 호주의 국가

별·연령별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이원배치 분산분석을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유행성 추구

분산분석표에서 연령별 구분에 의한 차이는 5% 유의수준에서 유의하므로 유행성에 대하여 연령별로 차이가 있다. 유행성은 국가에 관계없이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호주의 30대와 40대 이상의 유행성 평균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전체적으로 한국과 호주의 20대의 유행

〈표 7〉 유행성추구

한국 (n=392)			호주 (n=208)			전체(n=600)		
연령	평균	표준편차	연령	평균	표준편차	연령	평균	표준편차
20대 (n=235)	2.8835	0.6069	20대 (n=109)	3.0069	0.6229	20대 (n=344)	2.9226	0.6138
30대 (n=67)	2.8321	0.7002	30대 (n=54)	2.7384	0.8458	30대 (n=121)	2.7903	0.7667
40대 (n=90)	2.7917	0.5993	40대 (n=45)	2.7278	0.7497	40대 (n=135)	2.7704	0.6512
전체 (n=392)	2.8536	0.6217	전체 (n=208)	2.8768	0.7237	전체 (n=600)	2.8617	0.6583

〈표 7-1〉 분산분석표 - 유행성

소스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값
모형	4.537	5	0.907	2.113
국적	0.014	1	0.014	0.034
연령	4.001	2	2.000	4.658**
국적×연령	1.369	2	0.685	1.595
오차	255.075	594	0.429	

** : P < 0.01

〈표 8-1〉 분산분석표 - 심미성

소스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값
모형	5.047	5	1.009	3.540**
국적	0.0005	1	0.0005	0.002
연령	1.553	2	0.776	2.723
국적×연령	1.662	2	0.831	2.914
오차	169.377	594	0.285	

** : P < 0.01

성 평균이 각 국의 30대와 40대 이상보다 높게 나타났고 특히, 호주의 20대 유행성 평균이 한국의 20대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 동·서양 모두 젊은 여성들이 유행을 더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심미성 추구

한국의 경우 심미성 평균은 20대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심미성 평균이 낮아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호주의 경우 심미성 평균은 20대나 30대, 40대 이상 모두 비슷하게 나타나 한국과는 달리 호주 여성들은 연령대에 관계없이 아름다움에 관한 욕구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3) 동조성 추구

동조성 요인에 의한 모형의 타당성은 1% 유의수준에

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국적 구분에 의한 동조성의 차이는 1% 유의 수준에서 유의하며 국적에 의한 차이가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호주 여성이 한국여성에 비해 동조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연령별에 의한 동조성의 차이 분석은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호주보다 경제적 부담이 적게 헤어샵 이용이 가능한 한국 여성들은 자신의 개성에 또는 얼굴형에 맞게 쉽게 헤어스타일 변화가 가능하고 경제적으로 헤어샵 이용 부담이 큰 호주의 경우는 비슷한 스타일을 유지하는 데서 이런 결과가 도출된 것이라 짐작된다.

4) 개성 추구

개성에 의한 모형의 타당성은 5% 유의 수준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국가에 의한 영향은 없으나 연령에 의한 차이는 개성요인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표 8〉 심미성추구

한국 (n=392)			호주 (n=208)			전체 (n=600)		
연령	평균	표준편차	연령	평균	표준편차	연령	평균	표준편차
20대 (n=235)	3.6872	0.5326	20대 (n=109)	3.5771	0.5322	20대 (n=344)	3.6523	0.5342
30대 (n=67)	3.6343	0.5902	30대 (n=54)	3.5833	0.5807	30대 (n=121)	3.6116	0.5841
40대 (n=90)	3.4144	0.4836	40대 (n=45)	3.5822	0.4937	40대 (n=135)	3.4704	0.4916
전체 (n=392)	3.6156	0.5425	전체 (n=208)	3.5798	0.5348	전체 (n=600)	3.6032	0.5396

〈표 9〉 동조성추구

한국 (n=392)			호주 (n=208)			전체 (n=600)		
연령	평균	표준편차	연령	평균	표준편차	연령	평균	표준편차
20대 (n=235)	2.7582	0.4772	20대 (n=109)	2.9847	0.4567	20대 (n=344)	2.8299	0.4818
30대 (n=67)	2.6716	0.4837	30대 (n=54)	2.9167	0.4745	30대 (n=121)	2.7810	0.4930
40대 (n=90)	2.7352	0.4786	40대 (n=45)	2.9370	0.6209	40대 (n=135)	2.8025	0.5365
전체 (n=392)	2.7381	0.4784	전체 (n=208)	2.9567	0.4993	전체 (n=600)	2.8139	0.4964

〈표 9-1〉 분산분석표 - 동조성

소스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값
모형	7.077	5	10415	5.982***
국적	5.654	1	5.654	23.900***
연령	0.526	2	0.263	1.111
국적×연령	0.0282	2	0.0141	0.060
오차	140.530	594	0.237	

*** : P < 0.001

전체적으로 호주 여성이 한국 여성보다 개성이 높게 나타났다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개성요인에 의한 헤어스타일 행동은 영향을 덜 받는다고 볼 수 있다. 호주의 20대 여성의 개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한국의 20대와 30대의 개성 요인은 비슷함을 알 수 있다.

IV. 결론

전체적인 이미지와 스타일을 중시하는 토털 패션시대에 사회·문화적 배경이 다른 한국과 호주 여성의 헤어스타일을 비교·분석한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헤어스타일의 형태 유지기간은 양국 공통적으로 6개월 미만이 많았고 머리길이는 양국 여성들 모두가 들어감에 따라 짧은 길이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머리의 유무에서는 한국과 호주 여성들 모두 자신의 이마를 가리는 헤어스타일을 더 많이 하고 있는데 한국 여성들이 호주 여성들보다 이마를 가리는 헤어스타일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헤어스타일 선택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에는 국가별로는 9항목 중 6항목에서 5%이상 유의수준에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즉 머리길이, 염색, 자신의 얼굴형, 의복과의 적합성, 사회적 신분에서 한국과 호주 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로 헤어스타일 선택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에는 한국의 경우는 헤어디자인, 의복과

〈표 10-1〉 분산분석표 - 개성

소스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값
모형	4.838	5	0.968	3.433**
국적	0.935	1	0.935	3.318
연령	2.818	2	1.409	4.999**
국적×연령	0.305	2	0.153	0.542
오차	167.414	594	0.282	

* : P < 0.05 ** : P < 0.01 *** : P < 0.001

의 적합성, 사회적 신분에서, 호주는 관리의 편리성에서 5%이상 유의수준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3. 선호하는 헤어스타일에 관한 비교에서는 선호하는 머리길이는 한국과 호주 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선호하는 모발형은 한국과 호주 모두 직모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염색모의 색상은 한국은 갈색, 호주는 밝은 갈색이 가장 선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호하는 펴미 종류는 한국은 굵고 자연스러운 웨이브를 주로 선호하였고 호주의 경우는 대체적으로 펴미를 선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 헤어스타일 행동에 있어서는 유행성과 개성 추구는 연령별에서, 동조성 추구는 국가간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심미성 추구는 연령과 국가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토털 코디네이션에서 중요한 요소의 하나인 헤어스타일에 관하여 신체 및 문화조건이 다른 한국과 호주의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현재의 헤어스타일 행동 및 선호도의 차이점을 비교·분석한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 헤어 관련 정보만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미용교육현장에서 서양여성의 모발에 관한 정보를 함께 비교·교육시킴으로써 동·서양 헤어문화의 차이에 관한 이해도를 증진시키고 해외 파견 인력을 위한 기초 교육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헤어스타일 행동, 헤어스타일 선호도, 모발색

〈표 10〉 개성추구

한국 (n=392)			호주 (n=208)			전체 (n=600)		
연령	평균	표준편차	연령	평균	표준편차	연령	평균	표준편차
20대 (n=235)	3.5326	0.5453	20대 (n=109)	3.6728	0.5117	20대 (n=344)	3.5770	0.5381
30대 (n=67)	3.5348	0.6393	30대 (n=54)	3.5556	0.5200	30대 (n=121)	3.5441	0.5868
40대 (n=90)	3.3648	0.4496	40대 (n=45)	3.4778	0.4828	40대 (n=135)	3.4025	0.4623
전체 (n=392)	3.4945	0.5459	전체 (n=208)	3.6002	0.5118	전체 (n=600)	3.5311	0.5363

참 고 문 헌

- 곽형심 (1997) 모발 미용학. 정문각.
- 김명주 (1997) 한국 여성의 헤어스타일 조형성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명희 (2000) 헤어스타일 모방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병미, 유미근 (2004) 대학생의 헤어패션 행동에 관한 연구. 의상디자인학회지, 6(1), 1-12.
- 김양휴 (1996) 패션 헤어스타일의 선호와 성격간의 상관성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희숙 (1993) 20세기 서양여성 Hair Style 변천에 관한 연구. 성균관 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나광주 (1993) 의복과 헤어스타일의 인상형성에 대한 관심도.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도주연 (1991) 헤어스타일 변화에 의한 얼굴이미지와 형태의 변화분석.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류지원, 소영진 (2000) 헤어디자인의 구성원리 및 원랭스 커트에 대한 고찰. 한국미용학회지, 6(1), 39-54.
- 미용교재연구회 (1998) 종합미용이론. 서울: 유신문화사.
- 복식대백과사전 (1969) 문화출판사.
- 복식사전 (1995) 라사라 교육개발원. 도서출판 라사라.
- 양숙희 (2001) 헤어스타일에 대한 여성들의 의식형태와 관련된요인 분석. 경산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오문균 (2003) 테크놀로지 이미지의 헤어스타일의 동시화에 관한연구. 세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윤소영 (2001)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대구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시원 (2004) 공적·사적 자기의식에 따른 바디이미지와 외모관리 행동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Cash TF (1986) The impact of grooming style in the evolution of women in management, In M. R. Solomon(Ed.), *The Psychology of Fashion*, Lexington Books, MA: Lexington.
- Davis, J, Terry, L (1976) Components of facial attractiveness. *Perceptual and Motor Skills*, Vol 42, p. 918.
- Pancer, SM, Meindl JR (1978) Length of hair and beardness as determinants of personality impressions. *Perceptual and Motor Skills*, Vol 46, p. 1328-1330.
- Peterson, K, Curran, JP (1976) Trait attribution as a function of hair length and correlates of subjects preferences for hair style. *Journal of Psychology*, 93(2), p. 331-339.

(2005. 01. 25 접수; 2005. 12. 21 채택)